

시정연
2003-PR-18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경제의 역할

The Role of Seoul Economy
In the Process of Korea Economic Development

2004

연구진

연구책임 왕연균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 I 장 서 언	1
제 II 장 압축성장의 원인과 결과	4
제 III 장 수도권경제의 선도와 변동성	7
제 IV 장 서울경제의 집중도	10
제 1 절 생산, 소비, 고용	11
제 2 절 인구	18
제 3 절 대학교육 및 연구	19
제 4 절 벤처기업, 정보통신 및 특허	21
제 5 절 특허	21
제 6 절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22
제 7 절 물류와 교통	22
제 8 절 금융	22
제 9 절 국제사회와의 연계	23
제 10 절 마스크업 산업	23
제 11 절 지방재정의 지원	23
제 12 절 전화와 자동차	23
제 V 장 개방과 개혁, 사회 인프라	26
제 VI 장 결 론	32
부 표	34
참 고 문 헌	43

표 목 차

<표 3-1> GDP 및 시도별 지역총생산 증가율	8
<표 4-1> 서울경제와 사회의 집중도 추이 (전국에 대한 비율)	10
<표 4-2> 지역내 총생산 구성비의 추이	12
<표 4-3> 수도권 생산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의 비율	13
<표 4-4> 수도권 산업별 생산액 구성비율 추이	13
<표 4-5> 수도권 취업자 변동 추이	14
<표 4-6> 수도권 산업별 종사자 추이	14
<표 4-7> 전국 대비 서울시 업종별 종업원 비율	16
<표 4-8> 전산업 대비 서울시 업종별 종업원 비율	17
<표 4-9> 수도권 사업체수와 비율의 추이	17
<표 4-10> 수도권 인구 변동 추이	18
<표 4-11> 수도권 인구 전입 및 전출	19
<표 4-12> 수도권 연구개발 인력의 분포	20
<표 4-13>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정부, 기업, 대학 산하 포함)	20
<표 4-14> 서울시 정보기술산업의 규모 변화	21
<부표 1> 총취업자(공공기관, 비영리사업 포함)와 제조업 취업자	34
<부표 2> 대학, 연구기관의 SCI 논문 발표 수 : 2001년 기준	35
<부표 3> 벤처기업 추이	36
<부표 4> 정보통신업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36
<부표 5> 특허	37
<부표 6> 의료 인력 및 의료기관	38
<부표 7> 금융	39
<부표 8> 국제회의 개최	40
<부표 9> 전화가입자 및 자동차 등록대수	40
<부표 10> 대학 재학생 수	41
<부표 11> 석박사 재학생수	42

제 I 장 서 언

제 I 장 서 언

서울은 면적이 전국의 0.6%,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도시(mega city)로서 한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여왔으며 세계경제와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도시(world city)가 되어 있다. 서울경제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주변으로 확산되어 인천과 경기도에 여러 핵을 두는 다핵형 수도권(Seoul Metropolitan Region)경제를 형성하였고 이것은 전국토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의 면적을 가진 경기도의 인구는 2003년 말 현재 인구가 1000만이 넘고 서울인구를 초과하였다. 2001년 현재 서울의 총생산(GDRP: Gross Domestic Regional Product)은 국내 총생산(GDP)의 22.4%, 수도권 총생산은 48%를 차지한다. 한강의 기적과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도 수도권경제이지만 1990년대부터의 우리나라 경기침체도 수도권경제의 침체에 주요 원인을 두고 있다.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경제의 활력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동북아 물류·금융·경제중심, 소득 이만불 경제, 행정수도의 이전, 국가균형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이때에 수도권경제가 우리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검토하고 동아시아 경제 허브(hub)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서울·수도권 경제의 지금까지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이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서울·수도권의 발전과 그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997-1998년의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저 성장은 한국경제는 물론 수도권 경제도 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제약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침체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남미 거대도시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 과감한 정책전환에 성공하는 경우에만 동경, 상해,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중심지의 하나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근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고 실업문제가 개선될 전망이 보이고 있지 않아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들 문제의 해결도 우리경제의 기관차인 서울과 수도권에서부터 풀어가면 더욱 쉬울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globalization)의 조류에 빠르게 동참하고 있으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정책

의 변환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 세계화의 이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세계화의 부작용에 의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동아시아의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동경에 비해서 기업 환경과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기업 환경에서는 상하이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위의 도시들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대단히 폐쇄적이고 많은 규제에 묶여있으며, 대기 오염과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경제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전국경제에 대한 선도성, 전국경제에서의 주요산업의 비중과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개방·개혁·사회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서울의 역할과 제약점, 전국경제에서의 역할 증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 Ⅱ 장 압축성장의
원인과 결과

제 II 장 압축성장의 원인과 결과

서울과 수도권 경제의 집중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원인이자 결과이다. 제한된 자본, 지식기술인력, 기반시설을 가지고 군사정부는 1960년대 초에 정부주도에 의한 불균형성장 전략으로 수출주도 공업화를 시작하였고 빠르게 소득과 고용을 늘리고자 하였다. 강력한 행정력에 의한 효율적 국정운영과 산업과 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서울에 정치, 행정의 중심기능을 집중하여 가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정부의 각종 인.허가와 지원, 금융기관이 몰려있고 국내외 정보의 습득이 용이한 서울에 대기업도 본사를 두고자 하였다. 더욱이 각종 규제가 불투명하고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야 일이 성사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행정본부가 있는 곳에 관련기업들의 본사가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은 정부와 기업의 중추관리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조 500년과 일제시대의 수도였던 서울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문화, 예술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외국 대사관, 외국기업이 집중하여있고 대외거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 졌다.

1960년대부터 한국경제가 높은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잘 교육받은 인력이 풍부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업제품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학생수의 반 이상이 서울에서 교육받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대부분 서울에 소재해 있었으며 우수한 고등학교도 서울에 많이 있었다. 또한 기업, 대학, 정부산하 연구소의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의 당시 비교우위는 서울이 배출한 숙련된 인력(skilled labor)에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낮은 실질금리의 자금배분은 수도권 경제의 빠른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서울은 행정은 물론 경제와 사회 인프라가 비교적 잘 되어 있고, 협력업체, 생산 관련재 공급자, 수요자, 인력, 기술이 가까운데 있고 각종 정보 습득이 용이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며 규모우위 경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제품공급이 가능한 것도 수출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대단히 짧고, 언어와 법, 제도가 선진제국과 크게 다른 상황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데는 기업들간의 상호협력체제가 손쉽고 인력과 정보의 공유가 쉬운 기업집단과 정부의 강력한 기업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서울경제와 수도권경제의 성공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타 지역에서 많은 인구 전입을 가져와 수도권 인구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제조업 중심이던 시기에는 산업이 도시를 만들었으나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거대도시가 서비스화, 첨단산업화하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는 거대도시가 산업, 기업을 만들고 있다. 지식, 기술, 정보가 있는 곳에 동종 및 이종 기업이 집적(clustering)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은 적절한 정부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기업과 고용 기회가 빠르게 창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년들어 수도권에는 전자, IT, 첨단산업과 금융, 보험, 디자인, 전문 컨설팅 등 산업이 발전하여 한국경제의 고부가가치화, 소프트화, 서비스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약으로 경쟁국 대도시에 비해서 수도권 경제의 에너지가 약하다.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은 또한 구매력 증대와 분업구조의 심화를 가져와 수도권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수도권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 서비스 산업화와 첨단산업의 발전, 저부가가치 산업의 빠른 감소는 세계경제 속에서 수도권의 분업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제 Ⅲ 장 수도권경제의
선도와 변동성

제 III 장 수도권경제의 선도와 변동성

우리나라의 산업은 빠르게 소프트화, 서비스화하고 있다. 1993년에는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수의 68%가 서비스업에 있었으나 2002년에는 77%로 증가하였다. 서울은 같은 기간에 동 비율이 72%에서 85%로 경기도는 49%에서 71%로 수도권은 64%에서 78%로 급증하였다<표 4-6 참조>. 전국은 동 비율이 9% 증가한데 비해 수도권은 14% 증가하였다.

생산액의 변화를 보면 1986년 전국의 총생산 중 서비스업의 비율이 57%였으나 2001년에는 62%로 증가하였다. 서울은 동 비율이 81%에서 91%, 경기도는 40%에서 46%, 인천은 48%에서 61%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4-4 참조>.

전국경제생산의 22%, 48%를 차지하는 서울과 수도권경제의 규모, 서비스생산이 우리나라 생산액의 62%를 차지하는 점, 수도권의 빠른 서비스화를 볼 때 수도권이 전국의 경제변동과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국 서비스산업 생산액의 31.6%는 서울에서 15.4%는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수도권은 전국 서비스생산액의 51.7%를 생산하고 있다. 전산업생산액 중 수도권생산액의 비율 48%보다 더 높다. 근년 우리나라 고용창출의 대부분은 주로 서비스부문이었고 앞으로도 이 부문에서 고용기회가 주로 창출될 것을 생각하면 수도권은 고용기회 창출에 있어 타 지역보다 공헌이 더욱 많았고 향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은 전국보다 더욱 심한 경기 변동률을 가져온 것을 수도권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볼 수 있다<표 3-1 참조>. 전국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1986-1990년 기간에는 서울경제가 전국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전국 경제성장률이 낮은 1991-2001 기간에는 서울경제의 성장률이 전국보다 낮다. 경기호황기에는 서울경제는 더욱 호황을 침체기에는 더욱 심한 침체를 보여 왔음을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수도권 경제의 선도역할이다. 둘째는 서울경제가 전국경제의 경기변동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결과이다. 위의 기간 중 서울 생산의 81-91%가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생산인데 서비스부문 생산은 전 국민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큼으로 국민소득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서울시 소득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국내소득이 저성장을 보일 때는 서비스지출 증가가 둔화되어 서울경제는 전국보다

더욱 낮은 성장을 하게 된다.

수도권 경제 전체로 보면 전국경제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져 전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여왔다.

<표 3-1> GDP 및 시도별 지역총생산 증가율

(단위: %, 1995년 가격)

	19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전국 ¹⁾	9.6	7.1	5.9	8.2	7.4	8.3	4.9	-7.4	12.9	9.4	4.5
서울	7.4	6.3	7.0	4.0	3.0	7.0	0.9	-9.1	9.5	6.8	2.3
경기	16.5	9.1	7.8	8.4	11.3	8.6	9.2	-2.0	23.8	20.3	6.3
인천	9.9	7.2	6.8	10.9	12.0	5.6	2.3	-14.0	15.1	8.5	2.9

주: 1) 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부문, 수입관세부문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지역 내 총생산 및 지출, 각 년도.

우리나라 수출의존율 (재화와 서비스 수출액/총국민소득)의 비율은 1990년대 초의 28%에서 2000년에 4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만큼 국내경기가 해외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수도권의 서비스화는 수도권이 우리경제의 지나친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완충(buffer)역할을 상당한 정도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고용이 전 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15% 포인트 낮다. 향후 그만큼 고용창출에 기여할 여지를 보여준다.

수출경기(그리고 이에 유발된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전국경제와는 달리 서비스경제인 서울경제는 내수경기에 주로 의존한다. 수출경기가 내수경기를 선도하기도 하지만 전국생산액의 62%가 서비스산업에 기인하기 때문에 내수경기는 또한 전국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년에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침체하니 전국 경제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및 내수산업 경기회복이 전국 경기회복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제 IV 장 서울경제의 집중도

제 4 장 서울경제의 집중도

서울경제와 사회 집중도 추이를 1980-2000년 기간에 걸쳐서 보면 다음 <표 4-1>와 같다.

<표 4-1> 서울경제와 사회의 집중도 추이 (전국에 대한 비율)

(단위: %)

	1980년	1990년	2000년
인구	22.6	24.5	21.4
총생산액(79년)	28.5	27	21.7
광업·제조업체수(79년) ¹⁾	24.6	24.9	18.6
내국세징수액	31.5	38.2	46.1
종합소득세확정신고액	50.1	56	57.6
부가가치세	32.4	22.2	20.5
법인세부과액	66.2	70.2	71.5
은행예금(81)	63.5	53.3	51.9
은행대출(81)	62	52.1	47.6
금융기관 점포수(81)	36	39.3	38.8
도소매업체수(79)	24.9	28.9	26
도소매판액(79)	36.5	41.3	47.3
전력소비량	18.3	17	13.1
숙박시설(79)	19.1	17.3	15.8
자동차 수	41.5	35.2	20.2
대학교 수	43.5	29.6	21.3
의료기관수	35.9	35.7	27.6
종합병원수	39	28.1	23.2
의사수	40.6	40.9	23.5

주: 1)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통계청, 서울통계년감, 1982, 1991, 2001.

많은 지표에 있어서 서울의 집중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지표는 상승을 일부 지표는 비슷한 집중도를 보여준다. 인구비율은 증가 후 감소를 보이며 총생산액(gross domestic regional product) 비율과 광공업체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

나 여전히 20% 선에 이르고 있다. 1980년, 1990년에는 세계의 많은 거대도시처럼 국민총생산액 비율이 인구비율을 상당히 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21%대에서 거의 근접하고 있다. 내국세징수액 비율은 1980년의 31.5%에서 46.1%로 크게 증가하였고 종합소득세, 법인세부과액 비율도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법인세 비율은 71.5%에 이르렀다. 이는 많은 기업 본점이 서울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은행예금비율과 대출비율은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10%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1990년과 2000년 사이에는 약간 하락하여 52%와 48%에 이르고 있다. 금융기관 점포수는 기간 중 증가하여 1990년부터 39%선을 유지하고 있다. 도소매판매액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37%에서 47%로 증가하였다. 전력소비량, 숙박시설, 자동차 수, 대학교 수,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수, 의사 수 비율은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금징수액, 금융기관 점포수, 도소매판매액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그 이외는 꾸준한 감소를 보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의 경제 집중도는 대부분 20% 이상으로 인구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제 1 절 생산, 소비, 고용

지역내 총생산(GRDP)의 추이를 보면 수도권생산은 1986년에 전국 생산의 41.8%에서 2001년에는 48.2%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생산비율은 24.6%에서 22.4%로 감소하였으나 경기에서는 13.0%가 21.0%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표 3 참조>. 서울과 경기의 생산비중은 인구 구성비인 21.4%, 19.5%보다 약간 높으나 인천생산 비중은 인구비율 5.4%보다 낮다.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의 비율을 보면 2001년에 서울 79.1%, 경기 61.6%, 인천 76.3%로서 서울과 경기의 차이가 크다. 서울의 소득은 대부분 소비지출로 연결되고 경기의 소득은 훨씬 큰 비율이 자본형성에 사용되고 있다<표 4-3 참조>.

산업생산 구성비율의 변화는 <표 4-4>와 같다. 1986-2001년 기간 중에 서울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반 이하로 빠르게 감소하였고 기타 서비스(사회간접자본 제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천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기타 서비스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합한 서비스생산은 61%로서 전국평균 62%와 근접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 기타 서비스업도 서서히 증가한 반면에 농업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의 광공업생산 구성비는

전국비율보다 훨씬 높고, 서비스 생산 구성비는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50%에 그쳐 전국비율보다 훨씬 낮다. 서울, 인천은 빠르게 서비스화하고 있다. 수도권 공장입지와 증설에 대한 규제, 높은 차등과세, 수도권 공장의 해외 및 국내 타 지역 이전,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높은 임대료와 토지가격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취업자수의 전국 취업자수에 대한 구성 비율을 보면 <표 4-5>에서와 같이 1975년에는 각각 17.1%, 30.2%에 불과했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24.6%, 46.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서울이 21.6%로 3% 포인트 하락하고 수도권은 47.1%로 약간의 상승을 나타냈다. 1975-1985년 기간에 서울 취업자는 100만명, 수도권은 130만명이 증가하였고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1985-1995년 기간에는 서울 취업자수가 300만에서 500만명으로, 수도권은 500만에서 950만명으로 거의 두배 증가하였다. 1995-2002년 기간에는 금융위기와 경제구조조정으로 서울취업자는 23만명이 감소하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100만명, 20만명이 증가하여 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97만명 증가에 불과하였다. 전국 대비 수도권의 취업자 구성비도 1985년 33.3%에서 1995년 46.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5-2002년 기간에는 46.4%에서 47.1%로 미미한 상승에 그쳤다. 2002년 서울과 수도권 취업자 구성비는 인구 구성비 및 생산액 구성비와 비슷하다.

<표 4-2> 지역내 총생산 구성비의 추이

(단위: %, 경상가격 기준)

	1986년	2001년
전국	100	100
수도권	41.8	48.2
서울	24.6	22.4
경기	13.0	21.0
인천	4.2	4.9

자료: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 1987년, 2002년

<표 4-3> 수도권 생산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의 비율

(단위: %, 경상가격 기준)

	1997년	2001년
서울	77.9	79.0
경기	60.3	61.6
인천	66.7	76.3

자료: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 1997, 2001

<표 4-4> 수도권 산업별 생산액 구성비율 추이

(단위: %, 경상가격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공업)	건설,전기,가스,수도	기타서비스
1986년				
전국	10.8	32.2(31.0)	10.4	46.6
수도권	3.9	31.3(30.8)	10.2	54.6
서울	0.9	18.2(17.9)	9.0	72.0
경기	10.2	50.1(49.5)	11.6	28.1
인천	1.7	50.8(50.1)	10.8	36.7
1995년				
전국	6.4	30.6(30.3)	14.3	48.7
수도권	1.8	27.9(27.7)	12.5	57.8
서울	0.4	11.3(11.3)	9.4	78.8
경기	3.9	46.9(46.6)	17.2	32.0
인천	1.7	48.8(48.6)	14.2	35.3
2001년				
전국	4.4	33.8(33.6)	11.8	50.0
수도권	1.4	30.7(30.6)	9.8	58.1
서울	0.4	8.3(8.3)	8.1	83.1
경기	2.4	51.9(51.8)	11.4	34.4
인천	1.5	37.9(37.7)	10.9	49.6

자료: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 각 년도.

<표 4-5> 수도권 취업자 변동 추이

(단위: 명, %)

	전국	서울시	인천	경기도	수도권 총계
1975	11,691,000	1,998,370	228,550	1,480,499	3,707,419
	비율(%)	17.1	1.8	11.7	30.23
1985	14,970,000	2,925,556	430,939	1,606,985	4,963,480
	비율(%)	19.5	2.9	10.7	33.33
1995	20,414,000	5,014,000	981,000	3,482,000	9,477,000
	비율(%)	24.6	4.8	17.1	46.42
2002	22,169,000	4,783,000	1,178,000	4,485,000	10,446,000
	비율(%)	21.6	5.3	20.2	47.1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조사보고서, 각 년도

지역별 통계연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 년도

<표 4-6> 수도권 산업별 종사자 추이

(단위: 1000명, %)¹⁾

	총취업자	제조업	서비스
1993년			
전국	12,245(100) (100)	3,884(31.7)	8,361(68.3)
수도권	6,246(100) (51.1)	2,249(36.0)	3,997(64.0)
서울	3,974(100) (32.5)	1,126(28.3)	2,848(71.7)
경기	1,746(100) (14.3)	884(50.6)	862(49.4)
인천	526(100) (4.3)	239(45.4)	287(54.6)
2002년			
전국	14,608(100) (100)	3,393(23.2)	11,215(76.8)
수도권	7,249(100) (49.6)	1,589(21.9)	5,660(78.1)
서울	3,805(100) (26.1)	572(15.0)	3,233(85.0)
경기	2,721(100) (18.6)	785(28.9)	1,936(71.1)
인천	723(100) (5.0)	232(32.1)	491(67.9)

주: 1) 산업별 종사자수에는 정부서비스, 민간 비영리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제외되고 도소매, 음식,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회간접자본이 포함됨.

자료: 재경원,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1994, 2003

1993-2002년의 10년간 정부서비스와 민간 비영리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산업별 종사자 수의 추이는 <표 4-6>과 같다. 기간 중 전국의 총취업자수는 240만명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약 50만명 감소하였다. 수도권 취업자수는 100만명의 증가에 불과하였고 제조업은 66만명의 감소를 보였으며 그 중 서울 55.4만명, 경기 9.9만명, 인천 0.7만명의 감소가 있었다.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17만명 감소가 있었으며 제조업에서는 55.4만명의 감소가 있었다. 서울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8%에서 15%로 거의 반으로 줄었고 경기는 51%에서 29%로, 인천은 45%에서 32%로 크게 감소를 보여 수도권의 서비스화는 생산액 구성보다는 취업자 구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93년에는 서울의 취업자 구성비가 인구구성비 23%보다 훨씬 높은 33%를 보였으나 2002년에는 취업구성비가 크게 떨어져 26%를 나타냈다. 이것은 같은 년도의 인구구성비 21%보다는 약간 높으나 고용 파워 하우스(power house)의 역할은 취약해졌음을 보인다. 수도권의 인구구성비도 1% 포인트 하락하였다. 경기지역은 기간 중 취업자 구성비율이 많이 상승하였음에도 2002년에 인구비율 20%, 생산비율 21%보다 낮은 19%의 취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3년에 수도권은 제조업취업자 비중이 전국의 그것보다 더 높았으나 2002년에는 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전국의 그것보다 더 높다. 경기가 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서울 사업체 취업자의 85%, 경기 71%, 수도권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표 1>은 공공기관과 비영리사업 종사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표 4-5>보다 더욱 많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 것이다. 위와 같은 기간에 전국 대비 서울 취업자 비율은 2%포인트 감소하였으나 경기는 4%포인트 상승하였다. 경기도 취업자 총수는 서울 취업자에 비해서 1993년에는 160만명 적었으나 2002년에는 30만명 적은 수로 근접해 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 취업자수는 36만명 감소했고 서울에서는 34만명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서비스산업을 세분류하여 전국대비 서울 사업체 종업원비율을 보면 <표 4-7>과 같다. 2001년 서비스업 중 서울의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사업서비스로 52.4%이며 건설, 도매·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음식·숙박업은 24-29%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자 서비스업을 구성하는 도매,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

스업에 있어서 서울의 국내 비교우위가 높다. 특히 높은 취업자 집중 비율을 보이는 사업서비스업에는 법무·회계·기타 사무, 건축공학 및 기술 검사, 조사 및 정보관련, 광고 및 인력공급 대리, 기계장비 임대 등이 있는데 기계장비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서울 집중비율이 50%대에 이르고 있고 조사 및 정보관련업에는 70%대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통신업 취업자비율은 1980년대, 1990년대의 20%대에 서 2001년에는 34%로 증가하였다. 교육부문의 비율은 21%이나 가정교사, 소규모 학원 등 사교육부문을 포함하면 훨씬 높을 것이다.

<표 4-8>은 2000년말 서울시의 전산업 종업원 대비 업종별 종업원 비율을 본 것이다. 제조업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업종에 속한다. 서비스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22.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 10.2%, 교육서비스 9.0%, 운수·창고·통신업 6.5%,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5.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5.5%로 높다.

<표 4-7> 전국 대비 서울시 업종별 종업원 비율

(단위: %, 2001)

업종	종업원비율	업종	종업원비율
제조업	17.5	부동산·임대업	34.5
전기·가스·수도	17.4	사업서비스	52.4
건설	32.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20.7
도·소매	32.1	교육서비스	20.9
음식·숙박	23.9	보건·사회복지사업	25.6
운수·창고	30.9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	28.5
통신	33.7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	23.1
금융·보험	36.0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2002

<표 4-8> 전산업 대비 서울시 업종별 종업원 비율

(단위: %, 2000년)

업종	종업원 비율	업종	종업원 비율
농림어업	0.02	금융.보험	1.1
광업	0.03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5.6
제조업	15.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3.1
전기.가스.수도	0.3	교육서비스	9.0
건설	6.6	보건.사회복지사업	2.8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	22.8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	5.5
숙박.음식점	10.2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2.6
운수.창고.통신	6.5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	4.7

자료: 서울시,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2001

<표 4-9> 수도권 사업체수와 비율의 추이

(단위: 1000개, %)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981	1,264(100)	41.1%	28.8%	9.1%	3.3%
1991	2,118(100)	44.6%	27.4%	13.0%	4.1%
2002	3,132(100)	45.6%	23.5%	17.3%	4.9%

주: 사업체는 광공업, 서비스업으로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제단위임.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전국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각 년도.

사업체수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서울은 1981년 29% 2002년에 24%로 감소했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에 9%에서 17%로 빠르게 증가하였다<표 4-9 참조>.

서울시의 사업체수는 1996-2001년 사이에 70만개에서 72.6만개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1-499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지만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695개에서 509개로 감소하였다: 500-1000명 미만에서는 384개에서 334개로, 1000명 이상에서는 311개에서 175개로 큰 감소를 보였다. 사업체는 5-19인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역도 전국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체 비율이 훨씬 높다.

제 2 절 인구

서울의 인구는 1991년에 감소를 보이기까지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 1000만명을 돌파하였다. 전국대비 서울의 인구비율은 1985년에 23.8%에서 1995년에 22.9%, 2001년에는 21.5%로 감소하였다<표 4-10 참조>. 경기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전국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5년에 경기인구 구성비는 10.7%로 서울 비율 19.5%의 절반 정도였으나 2001년에는 20%로 서울의 비율 21.2%에 근접하고 2003년에는 서울인구를 초과하였다. 인천 인구도 계속 증가하여 5.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구성비는 1966-2000년 기간에 23.7%에서 46.5%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1995-2001년 기간에는 1.2%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서울, 경기,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각 지역의 취업자 구성비와 비슷하다. 수도권 인구증가는 이 지역에서의 교육기회와 고용기회가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1993-2002년 기간에 수도권 순 전입자수는 106만 명인데 수도권 경제가 나빴던 1995-1998년 기간에는 순 전입이 적고 경제사정이 비교적 나은 다른 기간에는 전입자가 크게 늘어남을 보여 준다<표 4-11 참조>.

<표 4-10> 수도권 인구 변동 추이

(단위: 명, %)

	전국	서울시	인천	경기도	수도권총계
1965	29,159,640	3,793,280	525,827	2,576,498	6,895,605
	비율	13.01	1.8	8.84	23.65
1975	34,706,620	6,889,502	800,007	3,239,125	10,928,634
	비율	19.85	2.31	9.33	31.49
1985	40,448,486	9,639,110	1,386,911	4,794,135	15,820,156
	비율	23.83	3.43	11.85	39.11
1995	44,608,726	10,231,217	2,308,188	7,649,741	20,189,146
	비율	22.94	5.17	17.15	45.26
2000	46,136,101	9,895,217	2,475,139	8,984,134	21,354,490
	비율	21.45	5.36	19.47	46.2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조사보고서, 1965년, 75년, 85년, 95년, 2000년

<표 4-11> 수도권 인구 전입 및 전출

(단위: 1000명)

	19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합계
전입초과	152	123	68	54	62	9	95	150	136	210	1,059
전입수	586	524	516	517	519	480	585	586	586	615	
전출수	435	401	447	463	456	471	490	436	450	4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제 3 절 대학교육 및 연구

1970년대까지는 대학생의 60%가 서울에, 70%가 수도권에 재학해 있어 서울이 대부분의 대학교육을 담당하였다. 1985년에는 대학생비율이 서울과 수도권에 각각 33%, 43%, 2002년에는 26%, 39%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부표 10참조>. 특히 서울의 석·박사 재학생 비율은 <부표 11>에서와 같이 1980년에는70%, 2000년에는 50%에 이르고 있다. 학생수에서 뿐만 아니라 입학성적이 나 취업상황에서 보아도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사회과학 인용지수(SCI) 논문실적이 상위인 기관들과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서울에 존재해 있다<부표 2참조>. 서울에 우수 대학과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해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대학 교육과 연구의 국제경쟁력은 대단히 낮다. 대학의 대부분은 사립대학인데 정부의 많은 규제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등록금에만 의존하므로 재정이 취약하여 연구시설과 지원이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된다. 특히 박사과정이 취약하다. 외국대학에 대한 개방, 기부금입학의 허용, 대학사회의 경쟁풍토의 조성, 싱가포르 같은 동북아 교육 허브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소득 이만불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지식수준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고급 지식·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수도권의 대학과 대학원의 혁신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1997-2001년 기간 중 서울 비율이 25%에서 30%로 경기는 30%에서 25%로 인천은 5%에서 11%로 높아져 수도권 비율은 59%에서 66%로 높아졌다. 서울의 연구전담기관 연구 인력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기업체 연구인력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표 4-12 참조>.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수에 있어서는 1995년에 서울이 29%였으나 2002년에는 36%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는 각각 65%와 66%의 집중도를 보였다<표 4-13 참조>.

<표 4-12> 수도권 연구개발 인력의 분포

(단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997				
총계	59.3	24.9	29.7	4.7
연구기관	39.6	21.6	17.1	0.9
대학	43.3	31.3	9.2	2.8
기업체	67.8	20.2	40.3	7.3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001				
총계	66.4	30.1	25.2	11.1
연구기관	37.5	17.4	17.4	2.7
대학	45.5	33.1	10.3	2.1
기업체	71.8	30	37.4	4.4

자료: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서, 1997, 2001.

<표 4-13>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정부, 기업, 대학 산하 포함)

(단위: %)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995	2,691(100)	65.4	29	28.9	7.5
2002	7,554(100)	65.8	36.1	25.4	4.3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활동 조사보고서, 1996, 2003

제 4 절 벤처기업, 정보통신 및 특허

서울과 수도권에는 벤처기업과 정보통신기업의 대부분이 집적해 있다. 1998년 전국 벤처기업 중 35%가 서울에 있었고 2000년 이 비율은 61%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에는 44%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00년 87%, 2002년에는 72%가 집적해 있다 <부표 3참조>. 정보통신 사업체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적현상이 뚜렷하다. 1999년 업체 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각각 35%, 56%가 있으며,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33%, 65%가 집적해 있다<부표 4 참조>.

서울시 정보기술(IT)산업 종사자수가 서울시 전체 종사자수에 대해서 가지는 비율은 1993년의 6.3%에서 2001년에는 9.8%로 증가했으며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2.8%에서 4.6%로 증가하였다<표 4-14 참조>.

<표 4-14> 서울시 정보기술산업의 규모 변화

(단위: 개, 명, %전산업 대비)

	1993	2001
사업체수	17,570(2.8%)	33,351(4.6%)
종사자수	249,310(6.3%)	379,055(9.8%)

자료: 신창호,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의 선택, '동북아 경제거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7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4.1998.2002.

제 5 절 특허

특허의 출원은 서울의 비율이 <부표 5>에서와 같이 1975-2002년 기간에 66%에서 43%로 감소하였으나 경기도의 비율이 상승하여 수도권은 76%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허 등록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에 서울의 비율이 72%에서 39%로 하락하였으나 수도권은 79%에서 76%로 변화했을 뿐이다. 특허의 2/3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 6 절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서울과 수도권은 2001년 현재 의료인력의 29%, 50%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26%, 45%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빈약하며 서울의 일류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도 없고 많은 환자가 외국병원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시장의 개방과 의료시장을 통해서 의료의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소득의 증대, 도시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진전과 더불어 보건, 노인 케어 서비스, 실버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같이 해외 일류병원을 많이 유치하여 국내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북아 의료 서비스 허브를 구축하여야 한다<부표 6 참조>.

제 7 절 물류와 교통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왔다. 수도권의 화물이 서울로 집합된 후 각 지방에 보내졌으며 지방의 많은 물건이 서울로 몰려왔다. 근년에 들어서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인천간의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수도권 내에서의 교통이 대단히 혼잡해졌다. 정부는 남북간의 철도, 도로연결과 대륙의 철도와의 연결 가능성, 인천공항과 고속철도의 완성, 주요항구의 확장계획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있어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광역 전철망을 조기에 건설하여 국내 분배와 교통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제 8 절 금융

금융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1975-1985년에는 전국 예금과 대출의 61-67%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에서는 70%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서울의 예금과 대출이 경기도에 많이 이전되어 서울의 예금, 대출비율은 51%, 44%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예금과 대출비율은 68%, 66%에 이르고 있다<부표 7 참조>. 그러나 서울에 있는 주식시장의 비중이 커졌고 채권거래, 사금융, 대외 자금거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짐으로 서울의 금융기능은 예금, 대출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서울의 금융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울의 금융산업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경영의 부실로 지난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의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소비침체도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 금융 구조조정의 완성,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개선, 정부의 감독기능의 강화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제 9 절 국제사회와의 연계

외국과의 사람, 돈, 정보교류의 대부분이 서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외국의 관광객은 대부분 서울과 서울근교를 관광하고 인천공항을 출입하며, 대부분의 자금거래와 정보교류가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1995-2002년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61-80%가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과 외국간의 통신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부표 8 참조>.

제 10 절 매스컴 산업

주요 신문, 방송, TV, 잡지 등이 서울에 몰려있고 이들은 영화 등 여러 가지 문화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제 11 절 지방재정의 지원

서울에서는 2002년 전국 법인세의 72%, 종합소득세의 58%, 내국세의 46%를 징수하였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지방도시의 재정자립도는 보통 60%선에 있고 서울은 시와 도의 재정을 도와왔다. 지방지원금이 낭비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지원 기준 등이 지방 분권화의 강화와 더불어 더욱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분권화의 강화도 중요하다.

제 12 절 전화와 자동차

현대 문명의 중요한 기기인 전화와 자동차의 서울집중률은 크게 낮아졌다. 1975년에 전화의 41%, 자동차의 44%가 서울에 있었으나 20'01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24%와 19%로 하락하였다. 수도권에서도 전화는 52%에서 45%로 자동차는 65%에서 46%로 감소하여 인구 구성비율과 비슷하여졌다. 이들과 중요한 내구재 구입에 있어서 수도권

과 타지역간의 평준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부표 9 참조>.

제 V 장 개방과 개혁,
사회인프라

제 5 장 개방과 개혁, 사회 인프라

수도권 경제의 발전과 변동은 해외경기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경영전략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들 정책이 수도권경제의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개방, 자유화를 포함한 개혁, 사회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보기로 한다. 서울은 재화, 서비스, 기술, 자본시장 개방의 창구이고 국내외간 사람, 물건, 정보, 기업의 이동이 주로 서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서울경제의 빠른 발전과 전국경제의 선도역할을 가능케 하였다.

서울과 수도권경제가 196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한 주요한 원인은 개방과 경제성장 유인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국제경제와의 연계와 교류를 주로 담당 한 서울은 신지식, 신기술, 신상품, 정보를 얻었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경제의 하부구조투자를 증대시키고, 산업발전과 연구개발투자 확대, 해외과학자 유치 등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금융, 재정, 환율정책, 행정력을 동원하고 수출관련 수입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주어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환경을 제공하고 외자도입에 성공했던 것이 수도권의 빠른 성장의 중요한 원인들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수입자유화는 국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기업그룹의 과감한 확장정책에 힘입어 고도 경제성장의 신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실패했을 때 항상 정부의 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의 경영본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부터 1990년의 3저 현상에 의한 호황기에 한국경제 생산 규모는 1.8배로 거의 두 배 성장했는데 수도권경제도 이 기간에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경기과열은 1991년까지 계속되었다. 빠른 수출 성장, 큰 경상수지 흑자, 외환자유화에 의한 많은 외국 자본의 유입, 풍부한 유동성(liquidity), 건설경기의 과열이 경기호황의 원동력이었다. 1990년대 초의 경기 냉각기에 경기과열 이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으나 1992년 말에 들어선 신정부의 경기부양에 밀려 1997-1998년의 경제위기를 맞아서야 구조조정이 시

작되었다. 대기업은 과대차입에 의한 문어발 경영, 분식회계 등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체질이 허약하여 대외 신인도가 낮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으로 산업자금의 배급소처럼 운영되고 투자 사업의 사전심사가 잘 됨이 없이 대출이 되었으며 빈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높은 부실대출 비율과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갖게 됐다. 또한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도 기업은 해고도 할 수 없는 노동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후진 시스템이 자본자유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금융위기가 온 것이다.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다 효율화 되었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기는 멀었다. 주식시장 주식가액의 42%가 외국소유이고 4개 시중은행이 외국펀드와 은행에 의해서 인수되어 국내 자금시장은 해외자본에의 의존성이 매우 커졌다. 그러므로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투명성의 제고, 지배구조의 개선 등 세계화에 적응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접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광대한 지역에서 무역장벽이 없이 분업이 심화되고 생산이 효율화되며 빠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기술이전이 빠르며 생산비가 낮고 제품가격이 저렴하다. 더욱이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싼 곳에서 필요한 물건과 용역을 구입하는 '아웃소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개방이 되지 않았고 또한 많은 규제에 묶여 있다. 수도권에서도 영종도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 또는 상당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정하여 중국의 자유무역지구와 경쟁한다면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본, 동남아지역,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맺는다면 큰 시장을 갖게 되고 적절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수도권은 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성장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좋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 개방과 지나친 정부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선진국의 60%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그 예로는 교육, 보건의료, 교통, 금융, 보험, 법률, 영화, 문화, 오락, 노인 케어 등을 들 수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들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에서 시장경제적인 서비스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의 중·고교 평준화 이후에는 수도권 외의 초중등교육이 개성 있는 발전을 못하고 전국교육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 같은 규제에 묶여있다.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와 같이 미래 지도자급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도 없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 개발하는 교육도 별로 없다.

외국어의 중요성은 역설하면서도 국내에 외국학교의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3년 2만명 이상의 중·고생이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을 떠났고 교육수지적자는 18억달러를 넘었다. 수도권 교육은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고 사고력 증진이나 토론식 수업은 등한시한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 교육 보내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은 수도권 사람들의 지식과 교육이다. 수도권부터 교육을 개방하고 평준화를 해제하여 교육시장에 경쟁풍토와 다양성을 키워 교육을 '업 그레이트'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영어 등 외국어에 능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많은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동경권의 많은 사립학교가 뛰어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 이어 동경도의 공립학교에서도 작년부터 교육평준화가 해제되어 경쟁적인 학생선발과 자율적인 교과편성을 하도록 하였다.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의료기술도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의료수가의 통제로 몇 가지 의료부문은 의사 지망자가 너무 적어 병원은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 한국인이 미국병원에 지출하는 금액이 년 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료기술을 선진화하고 대형병원을 많이 짓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산업을 개방하고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진과 의사소통도 어려운 현실에서 의료개방을 미룰 수 없다. 의료인력의 공급도 늘려야 한다. 민간 의료보험도 다양화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의료부문의 동북아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률서비스는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수도 대폭 늘리고, 국제법 자문도 손쉽게 법률시장을 개방

하여야 한다. 기업은 국제법자문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야 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은 전국의 예금과 대출비율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의 금융센터이다. 1980년대에는 60%대에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왔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금융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왔으며 주식시장, 채권시장, 사금융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왔다. 고도성장기에 은행과 일부 제2금융권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금을 배급하는 자금 배급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들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정부의 지시금융, 부실한 경영, 취약한 지배구조로 높은 부실채권과 대외 신뢰 상실을 가져왔고, 금융위기를 맞는 주요원인을 제공하였다.

서울·수도권이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문화와 외국인들을 수용하여야 하나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 전문가, 외국문화, 일본영화 등 접근이 어렵다. 미국과의 투자협정(BIT)의 선결요건인 스크린 쿼터의 철폐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1970년대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구역, 성장관리구역, 자연보전구역으로 나누고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투자기업 등 규모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다. 대기업과 외국기업은 투자가 대단히 어렵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종별 규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수도권내 인구유발 시설(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설치 금지, 공업지역 금지, 공장총량제 등이 운용되고 있고, 공장의 신·증설·이전이 금지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부담이 크고 본점, 사무소 설치, 공장 신·증설 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등기, 보유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3배로 증과하고 있다.

지식기반 산업은 지식, 인프라, 고급인력과 정보취득이 쉬운 수도권에 입지하려는 성향이 많은데 규제가 강하므로 해외 입지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에서도 수도권 입지규제를 폐지하였으며 동경에서도 1990년대부터 관련 규제를 계속 폐지해왔다. 동경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 경영합리화 신·증설은 허용하는 등 규제업종을 축소했으며 규제지역도 축소하여 규제지역은 우리나라 과밀 억제권지역(2036km²) 보다 훨씬 적은 909km²에 불과하다. 첨단업종과 서비스산업은 신·증설을 허용하고 과밀이나 환경악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노사관계 등 국내법과 각종규제, 생활환경이 글로벌 규범과 수준에 맞아야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활발해 질 수 있다.

수도권이 역동성을 가지려면 사람, 물건, 정보가 쉽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 벨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 중국 등의 고급인력이 쉽게 그곳에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고급인력을 수도권에 많이 유치해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서비스산업에는 사람과 사람이 쉽게 만나고 통신이 쉬워야하기 때문에 교통, 통신의 발전이 중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 도시처럼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건설을 앞당겨야한다. 정부는 2020년을 계획하고 있으나 너무 늦다. 수도권의 많은 교통량과 교통수요는 광역전철망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교통망은 교통혼잡, 수도권 대기오염, 에너지 절약, 주택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 연예, 운동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것은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며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소비하는 것을 조장하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지역특구를 많이 조성하여 최소한의 규제속에서 특성있는 지역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좋다. 관광 특구, 교육특구, 외국어 특구, 갬블링 특구, 보건의료특구, 노인 케어 특구, 국제문화특구, 영화특구, 한국 고전문화 특구, 음식특구 등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조성한다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동경과 일본의 각 지역에서도 지역특구가 조성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히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규제를 완화·해제할 수 있고, 교육 등의 행정과 재정에도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VI 장 결론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 수출주도 정책이 1960년대부터 성공한 것은 어느 수준까지의 지식·기술 인력이 풍부히 존재하여 인적자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교육과 연구기관의 클러스터가 형성, 발전하여 이러한 고급인력의 대부분을 공급하였다. 또한 자본, 정치, 행정력, 법제도, 대외거래, 해외 정보 등이 적고 미약한 개발 초기에 있어서 사회적 인프라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서울에 정부와 기업, 금융 기능을 집중시킨 것은 생산, 거래의 효율화로 거래비용의 감소,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생산비를 낮추어 단기간에 높은 수출성장과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국내외 도시와 지역의 분업구조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지식기반이 넓은 서울과 수도권경제가 빠르게 소프트화, 첨단화, 서비스화 되고 있다. 세계 거대도시로의 집적화(clustering) 현상이 서울, 수도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보와 기술인력이 있는 거대도시에 기업이 몰리는 것이다. 지식·기술인력이 많은 수도권에 벤처와 IT산업의 클러스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수도권의 높은 인구 흡수율 가능케 하였다. 서울은 생산자 서비스인 금융·보험·부동산과 사업자 서비스에서 국내 비교우위를 보여 왔고 특히 조사·정보관련, 광고, 법무·회계 등의 서비스사업서비스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보여 왔다.

서울은 개방과 자유화 정책,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타 지역보다 많은 혜택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전국경제의 선도가 가능하다. 수도권경제는 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구조전환하여 가면서 전국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의 많은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나 많은 애로에 봉착해 있다. 수도권 취업자의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창출도 어렵다. 내국인은 보다 나은 교육, 의료, 법률, 오락서비스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며 서비스의 해외수출은 더욱 어렵다.

수도권의 성장을 크게 제약해온 것은 지나친 규제와 비개방, 인프라 부족에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교육시스템의 낙후이다. 다양한 능력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시스템도 없고, 변화하는 산업과 첨단산업의 '니드(needs)'에 맞는 교육시스템도 없어 수도권외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교육평준화는 한국교육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과 금융 등 서비스업에 외국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많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큰 발전 잠재력이 있는 수도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개방하고 규제를 대폭 해제해야한다. 다양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집적효과에 의해서 쉽게 설립되도록 하고 외국기업의 유치에 위한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내의 각 지역에 지역특구를 설치하거나 자유경제지역을 확대하여 규제해제와 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다. 법과 관행을 개혁하여 친기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생활환경을 많이 개선해야한다. 수도권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건설 착공을 2020년보다 10년 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이 특성에 맞게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강화되어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부 표

<부표 1> 총취업자(공공기관, 비영리사업 포함)와 제조업 취업자

(단위: 1000 명, %)

	1993년		2002년	
	총취업자	제조업	총취업자	제조업
전국	19,234(100)	4,720(24.5)	22,169(100)	4,241(19.1)
	-100		-100	
수도권	8,594(100)	2,524(29.4)	10,446(100)	2,162(20.7)
	-44.7		-47.1	
서울	4,631(100)	1,174(25.4)	4,783(100)	835(17.3)
	-24.1		-21.6	
경기	3,033(100)	981(32.3)	4,485(100)	990(22.1)
	-15.8		-20.2	
인천	930(100)	369(39.7)	1,178(100)	337(20.7)
	-4.8		-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4년, 2003년.

<부표 2> 대학, 연구기관의 SCI 논문 발표 수 : 2001년 기준

순위	기관명	총 발표 수	비율	지역
1	서울대학교	2,371	16.60%	서울
2	한국과학기술원(KAIST)	1,369	9.60%	
3	연세대학교	1,105	7.70%	서울
4	포항공과대학교	736	5.10%	
5	고려대학교	729	5.10%	서울
6	성균관대학교	718	5.00%	서울
7	한양대학교	691	4.80%	서울
8	부산대학교	503	3.50%	
9	경북대학교	455	3.20%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445	3.10%	서울
11	전남대학교	420	2.90%	
12	인하대학교	396	2.80%	인천
13	충남대학교	356	2.50%	
14	광주과학기술원	311	2.20%	
15	경희대학교	306	2.10%	서울
16	전북대학교	305	2.10%	
17	울산대학교	292	2.00%	
18	이화여자대학교	258	1.80%	서울
19	아주대학교	250	1.80%	경기
20	충북대학교	250	1.80%	
21	키톨릭대학교	243	1.70%	서울
22	한국화학연구원	225	1.60%	
23	한국원자력연구소	213	1.50%	
24	경상대학교	199	1.40%	
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	1.40%	
2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4	1.40%	
27	강원대학교	182	1.30%	
28	중앙대학교	176	1.20%	서울
29	건국대학교	175	1.20%	서울
30	서강대학교	169	1.20%	서울

주: 국내 기관별 분석은 NCR(National Citation Report)DB 를 이용했음.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연구실적분석, 2001

<부표 3> 벤처기업 추이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총계
1998	2,042	719	451	196	1,366
(%)	100	35.2	22.1	9.6	66.9
1999	4,934	1,858	1,123	338	3,319
(%)	100	37.7	22.8	6.9	67.3
2000	8,798	5,345	1,781	491	7,617
(%)	100	60.8	20.2	5.6	86.6
2001	11,392	5,345	2,425	579	8,349
(%)	100	46.9	21.3	5.1	73.3
2002	9,570	4,159	2,298	460	6,917
(%)	100	43.5	24	4.8	72.3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DB 및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현황 조사보고, 각 년도

<부표 4> 정보통신업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1) 사업체 수

(단위 : 명, %)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총계
1997	42,473	13,715	2,041	6382	22,138
(%)	100.0	32.29	4.81	15.03	52.12
1998	42,071	14,291	1,903	6037	22,231
(%)	100.0	33.97	4.52	14.35	52.84
1999	30,903	10,725	1,602	5127	17,454
(%)	100.0	34.71	5.18	16.59	56.48

자료: 정보통신 산업 통계연보, 각 년도

2) 종사자 수

(단위 : 명, %)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총계
1997	607133	210014	22304	143862	
(%)		34.59	3.67	23.70	61.96
1998	572259	195428	21091	133006	
(%)		34.15	3.69	23.24	61.08
1999	572791	191516	24172	158022	
(%)		33.44	4.22	27.59	65.24

자료: 정보통신 산업 통계연보, 각 년도

<부표 5> 특허

1) 출원

(단위: 개, %)

	전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합계
1975	1,326	875	99		974
(%)	100	65.99	7.47		73.46
1985	2,703	1,408	108	512	2,028
(%)	100	52.09	4	18.94	75.03
1995	59,236	28,529	7,062	16,942	52,533
(%)	100	48.16	11.92	28.6	88.68
2002	76,570	32,813	1,850	23,426	58,089
(%)	100	42.85	2.41	30.59	75.85

주: 75년 인천의 수치는 경기도에 포함

자료: 특허청: 특허청 연보, 각 년도

2) 등록

(단위: 개, %)

	전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합계
1975	212	152	16		168
(%)	100	71.7	7.55		79.25
1985	349	194	11	35	240
(%)	100	42.69	3.15	10.03	55.87
1995	6,575	2,880	199	2,182	5,261
(%)	100	43.8	3.02	33.18	80
2002	30,175	11,746	875	10,395	23,016
(%)	100	38.92	2.9	34.45	76.27

주: 75년 인천의 수치는 경기도에 포함

자료: 특허청, 특허청 연보, 각 년도

<부표 6> 의료 인력 및 의료기관

1) 의료인력

	전국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총계
1985	90,777	34,369	3,844	6,265	44,478
(%)	100	37.86	4.23	6.9	49
1995	197,562	65,257	7,939	24,316	97,512
(%)	100	33.03	4.02	12.31	49.36
2001	265,770	76,344	12,110	43,732	132,186
(%)	100	28.73	4.56	16.45	49.74

주: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 물리치료사), 기타(접골사, 안마사, 침술사, 구술사) 포함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 정책과), 지역통계연보

2) 의료기관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총계	
	종합병원	의료기관총계	종합병원	의료기관총계	종합병원	의료기관총계	종합병원	의료기관총계	종합병원	의료기관총계
1975	37	12,724	22	4,649	2	280	3	1,123	27	6,052
(%)	100	100	59.46	36.54	5.41	2.2	8.11	8.83	72.97	47.56
1985	183	18,322	57	5,852	9	493	18	1,528	84	7,873
(%)	100	100	31.15	31.94	4.92	2.69	9.84	8.34	45.9	42.97
1995	266	33,377	73	9,506	12	1,375	37	6,407	122	17,288
(%)	100	100	27.44	28.48	4.51	4.12	13.91	19.2	45.86	51.8
2001	268	43,677	65	11,438	11	2,023	37	6,407	113	19,868
(%)	100	100	24.25	26.19	4.1	4.63	13.81	14.67	42.16	45.49

주: 의료기관-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특수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부설의원, 조산소, 보건소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위생 정책과,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부표 7> 금융

	전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총계	
	예금	대출금	예금	대출금	예금	대출금	예금	대출금	예금	대출금
1975	2,812	2,906	1,818	1,933	49	36	79	67	1946	2036
(%)	100	100	64.6	66.5	1.7	1.2	2.8	2.3	69.2	70
1985	31,203	33,811	18,878	21,385	820	772	1,682	1,485	21380	23642
(%)	100	100	60.9	63.2	2.6	2.3	5.4	4.4	68.9	69.9
1995	154,136	152,478	76,029	68,415	6,036	6,076	17,739	16,003	99804	90494
(%)	100	100	49.3	44.9	3.9	4	11.5	10.5	64.8	59.3
2002	512,419	471,684	259,355	209,579	19,363	22,004	70,652	79,531	349370	311114
(%)	100	100	50.6	44.4	3.8	4.7	13.8	16.9	68.2	66

주: 예금 :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자료: 통계청, 한국 통계연감 및 지역 통계연보, 각 년도

<부표 8> 국제회의 개최

(단위: 개, %)

	한국	서울	서울비중, %
1995	83	51	61.45
1996	85	67	78.82
1997	95	70	73.68
1998	58	43	74.14
1999	97	65	67.01
2000	108	74	68.52
2001	133	107	80.45
2002	128	82	64.06

자료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Yearly studies of international meetings 1995~2002

<부표 9> 전화가입자 및 자동차 등록대수

1) 전화가입자

(단위: 명, %)

	전국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총계
1965	220,635	96,940	5,094	16,567	118,601
(%)	100	43.94	2.31	7.51	53.75
1975	1,058,075	437,681	25,640	84,287	547,608
(%)	100	41.37	2.42	7.97	51.76
1985	6,517,395	2,275,300	303,979	528,323	3,107,602
(%)	100	34.91	4.66	8.11	47.68
1995	18,600,203	5,120,131	1,236,558	2,560,702	8,917,391
(%)	100	27.53	6.65	13.77	47.94
2001	22,724,668	5,480,463	1,049,047	3,800,519	10,330,029
(%)	100	24.12	4.62	16.72	45.46

자료: 통계청, 한국 통계연감 및 각 지역 통계 연보, 각 년도

체신부, 체신 통계 연감, 각년도

2)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

	전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총계
1975	193,927	85,407	20,905	19,547	125,860
(%)	100.00%	44.04%	10.78%	10.08%	64.90%
1985	1,113,430	445,807	40,486	114,194	600,487
(%)	100.00%	40.04%	3.64%	10.26%	53.93%
1995	8,468,901	2,043,458	443,956	1,551,194	4,038,608
(%)	100.00%	24.13%	5.24%	18.32%	47.69%
2002	13,949,440	2,691,431	752,781	3,040,041	6,484,253
(%)	100.00%	19.29%	5.40%	21.79%	46.48%

주 : 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특수차 등 모두 포함

자료 : 통계청, 한국 통계연감 및 지역통계연보, 각년도

<부표 10> 대학 재학생 수

(단위 : 명, %)

	전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총계
1975	208,986	124,728	9,480	9,163	
	비율(%)	59.7	4.5	4.4	69.68
1985	931,884	308,763	30,531	65,895	
	비율(%)	33.1	3.3	7.1	43.48
1995	1,187,735	310,723	29,854	144,594	
	비율(%)	26.2	2.5	12.2	40.85
2002	1,215,717	316,964	23,549	137,605	
	비율(%)	26.1	1.9	11.3	39.3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연보 각 연도

<부표 11> 석박사 재학생수

(단위 : 명, %)

석사	전국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총계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976	12,171	1,761	9,273	1,324	경기에 포함	경기에 포함	91	16		
			76.2	75.2			0.7	0.9	76.9	76.1
1980	27,610	3,774	19,494	2,667	"	"	614	34		
			70.6	70.7			2.2	0.9	72.8	71.6
1990	65,792	13,543	37,765	8,501	1,268	220	2,550	282		
			57.4	62.8	1.9	1.6	3.9	2.1	63.2	66.5
2000	69,184	27,863	34,509	13,857	1,579	832	3,504	1,121		
			49.9	49.7	2.3	3.0	5.1	4.0	57.2	56.7

주: 1970년, 1980년 인천의 수치는 경기도에 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참 고 문 헌

-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각 년도
통계청, 서울 통계년감, 1982, 1991, 2001
통계청, 지역별 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 조사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년도
재경원,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1994, 2003
과학기술부, 한국 과학기술기획 평가원, 과학기술연구 활동 조사보고서, 1997, 2001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활동 조사보고서, 1996, 200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연구실적 분석, 2001
산업자원부, 변처기업 현황 조사보고서, 각 년도
시정개발연구원, 동북아 경제거점도시 서울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 2003년
정보통신부, 산업 통계연보, 각 년도
특허청, 특허청 연보, 각 년도
보건복지부, 보건 복지 통계연보, 각 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연보, 각 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의 경제구조와 제조업, 1994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IT산업의 집적화 연구, 2001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997
Tokyo Do White Paper, Tokyo Do, 2002
Fu-Chen Lo and Yeung ed., Emerging World Cities in Pacific Asia,
United Nations University, Tokyo, 1996
Fuchen Lo and peter Marcotullio, Global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cit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United Nations University, Tokyo, 2001
Globalization and the world of large cities, United Nations University,
Tokyo, 1998

시정연 2003-PR-18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경제의 역할

발행인 백용호

발행일 2004년 1월 2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391번지

전화: (02)2149-1221 팩스: (02)2149-1245

ISBN 89-8052-339-4-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